

# 한국의 소리 커뮤니케이션

징소리의 메시지\*

김성재\*\*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 연구는 우리민족이 인간세상의 뜻을 천신에 전달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징소리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최한기의 '음악기학론'과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따라 분석하려는 시도다. 우리의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징소리는 기층민중들의 놀이판에서 발놀림에 따라 호흡을 조정함으로써 노동의 고통을 극복하는 신명의 기화와 인간 감성의 온갖 맏힘인 한의 기화가 상징화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문순태의 『징소리』에 등장하는 징소리는 기가 통하지 못하는 실항민들의 기쁨, 분노, 욕심, 두려움 그리고 슬픔의 한을 풀어내는 기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조정래의 『아리랑』에 나타나는 징소리는 일제 하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슬픈 한을 풀어주고, 식어버린 민족혼을 다시 일깨우는 기화의 메시지를 담아낸다. 유정자의 시집 『징소리에 실려올 꽃의 숨소리』에 나오는 징소리는 '심령의 간절한 울림'과 봄꽃의 숨소리로 기화되는 메시지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징소리는 하늘을 향해 열린 공간에서 일어나는 소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간에게 하늘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일깨워줌으로써 신명과 한의 기화가 상징화된 메시지를 담아내는 숭고한 하늘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징소리, 하늘의 소리, 음악기학론, 기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

## 1. 서론

한국의 소리 매체 중에서 쇠북(鐘) 소리가 “영혼의 소리”라면(김성재, 2004), 징소리는 “하늘의 소리”로 통한다. 징소리는 인간세상의 뜻을 천신(天神)에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우리의 조상들은 농악(農樂)과 무악(巫

---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sjkim@chosun.ac.kr

樂)에서 징을 울림으로써 인간의 소리를 하늘에 전달해왔다. 농악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종교적 놀이이고, 집단의식에서 짝든 예능양식으로 농경생활이 시작되면서 발달한 문화의 한 양식으로서 공동체적 염원을 결집하는 진취적인 행위, 신명(神明)으로 노동의 고통을 극복하는 재생과 생존의 예능이다(정병호, 1986, 17쪽). 농악의 악기는 신을 부르고 잡귀를 몰아내는 악기이기에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주술음악적(呪術音樂的)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신명은 춤을 통해 소외된 존재의 고통과 고통을 풀어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가운데 나온다. 천신과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농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무악(‘굿의 음악’)의 징소리는 새로운 무당의 탄생을 알리는 강신굿(降神굿: 내림굿)에서 시작해 마을의 평안(당굿)과 집안의 복(안택굿)을 빌고, 죽은 사람의 혼을 위로하는(오구굿) ‘굿’을 동반하는 소리로 기능한다(황루시, 1992; 손태룡, 2000).

몸울림악기(體鳴樂器)로서 웅장하고 부드러운 음색을 가진 징은 궁중에서는 대금(大金)이라고 불리며, 왼손에 들거나 틀에 달아 놓고 오른손에 숭 망치 모양으로 된 채를 들고 치는데, 주로 장단(長短)의 강박(強拍)에서 친다. 종묘제례악 중 정대업(定大業)<sup>1)</sup>의 아헌(亞獻) 및 종헌(終獻)악, 풍물(농악), 무악, 불교음악, 대취타(大吹打: 軍樂) 등에 다양하게 쓰이며, 최근에는 사물(四物)놀이에도 사용되고 있다(권오성, 2000). 우리나라에서 징은 삼한시대 이전부터 영농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농악에서 쟁과리, 장구, 북과 함께 사물(四物) 악기로 사용되어 왔으며, 농악에서 무악으로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굿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손태룡, 2000).

한편 강준일(1994)에 의하면, 속악(俗樂)의 장단을 담당하는 사물(四物)은 두 개의 쇠악기(징과 쟁과리)와 두 개의 가죽 악기(장고와 북)로 구성되어

1) 조선 전기 세종 때 창작된 무공(武功)을 찬양한 무악(武樂)으로서 성종 때(1493년) 편찬된 『악학궤범』에 따르면 아헌은 진고(晉鼓: 북)를 열 번 침으로써 시작되고, 종헌에는 대금(징)을 열 번 침으로써 끝난다(손태룡, 2000, 230쪽).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징은 북과 함께 군중(軍中)에서 사용되었는데, 북은 전진을 뜻하고 징은 후퇴를 의미한다고 전해진다.

있으며, 사상(四象)의 원리를 따른다. 징은 태양(太陽), 팽과리는 소양(少陽), 장고는 소음(少陰) 복은 태음(太陰)의 악기로서 쇠소리는 양(陽)에 속하여 머리(神)를 올리고, 가죽은 음(陰)에 속해 몸(精)을 올림으로써 이 두 소리가 잘 어우러져야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음양의 조화는 살아 있는 모든 것이 “생기를 지닌다”는 생기론(生氣論)의 요체가 된다.

따라서 징은 양(陽)의 악기로서 기층민중들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악과 무악에서 신(神)을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궁중음악에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민들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에는 인간적 삶을 서로 연결시키는 ‘두레’가 있었고, 두레가 있는 곳에는 두레 풍물이 있었다. 두레 풍물을 기반으로 기층민중들은 일과 상호작용하는 언어로 음악문화를 창출함으로써 문화감수성을 획득하였고, 두레 풍물이 열리는 판은 신명이 열린 판이자 자유와 해방의 공간이었다(노동은, 1995, 96쪽). 여기서 징 소리는 물체(징)와 물체(징체) 또는 인간의 기(氣)와 물체(징과 징체)를 부딪쳐서 소리로 그 기를 확인하는 데 가장 강하면서 놀이판의 호흡을 조정하는 장단을 이끈다.

커뮤니케이션학적으로 볼 때 징소리는 공기라는 원초적인 매체를 통해 방사되는 고체전달음이고, 그 메시지는 이 소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시간적으로(장단에 맞추어) 구성된 코드(code)를 통해 수행되는 청각적인 자극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대중매체가 등장하기 전 우리 민족이 소규모 공중 앞에서 상호작용적으로 수행한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소리 매체에 의존했다. 그러나 최근 ‘문화’가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 문화의 원형을 찾는 연구들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소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커뮤니케이션 역사 연구에서조차 전혀 주목받지 못한 주변 연구영역으로 남아

2) 여기서 메시지(message)의 개념은 정보나 기호(또는 상징체계로서 코드)가 아니라, 조직화된(구성된) 기호나 코드를 통한 자극이라는 논의(차배근, 1993, 398~410쪽)에 기초하고 있으며, 징소리는 일종의 청각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우리 민족이 창조해온 소리의 뿌리를 찾기 위한 시도로서 징소리를 통해 실천된 우리 민족의 문화적 감수성 획득과 친신과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될 방법론적 패러다임은 19세기 조선의 철학자이자 악학자(樂學者)인 혜강 최한기(惠岡 崔漢綺, 1803~1877)에 의해 창시되고 노동은(1994; 1995)이 체계화한 ‘음악기학론’(音樂氣學論)이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비언어적 기호인 징소리가 우리의 문학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커뮤니케이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징소리라는 기호는 우리의 소리 커뮤니케이션에서 신호 또는 상징으로서 특정한 의미를 메시지로 전달하기 때문에 미드(Mead, 1983)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핵심요소인 “유의미한 상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민족음악론(民族音樂論)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음악기학론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유의미한 상징”으로서 징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징소리에 우리민족의 애환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문학작품인 문순태(1993)의 연작소설 『징소리』, 조정래(1995)의 장편소설 『아리랑』 그리고 유정자(1991)의 시집 『징소리에 실려올 꽃의 숨소리』에 나타난 메시지를 해석한다. 이 작품들이 선택된 이유는 우선 이들이 일제강점기 36년과 30년 동안의 군사정권 시절 우리민족의 의식 속에 형성된 한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1차적으로 관찰(해석)된 징소리의 메시지를 다시 관찰하기 위해서다. “구성주의적 체계이론”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은 모든 관찰자(해석자)가 고유한 관찰기준을 가지고 제1차 관찰(해석)을 수행하지만, 그러한 관찰은 순진하고(자의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2차 관찰(관찰의 관찰)을 통해 제1차 관찰이 남겨둔 인식지평을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Luhmann, 1990, pp. 68~121). 따라서 작품 속에서 작가가 관찰한 징소리의 1차적 의미를 연구자가 다시 해석(관찰)하는 것은 제1차 관찰에서 남겨둔 해석의 자유공간을 제2차 관찰에 의한 2차적 의미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문자 텍스트를 통해 묘사된 문학작품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직접적인 만족과 감성적

반응을 강조하는 시청각적 매체를 이용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논리와 질서를 강조하기 때문에(김성재, 2005, 77쪽) 이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2차 관찰의 의미가 보다 더 간주관적(間主觀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 2. 음악기학론(音樂氣學論)

징소리는 청각을 통해 느끼는 울림으로서 잡음과 같은 자연적인 소리가 아니라, 음의 조화와 의미전달을 목표로 인간에 의해 창조된 인위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다루는 징소리는 인간의 의도를 반영하여 인간들 간의 의미 공유를 목표로 수행되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인위적인 소리이다. 음악기학론의 창시자 최한기는 그의 저서 『신기통』(神氣通)과 『기학』(氣學)에서 제규(諸竅: 인체의 아홉 가지 구멍)는 기를 통하고, 통하는 것은 서로 응(應)한다고 했으며, 기학은 인간 형질의 기를 신체를 통해 천지운화와 비교·증험하는 단계와 앎과 깨달음으로 천지와 인간간의 기의 균형(통합)을 이루며, “미루어 헤아린다”는 추측(推測)으로 인식지평을 확대하는 학(學)을 제시했다(노동은, 1994, 56쪽). 특히 신통론에서 악(樂)은 천지운화(天地雲火)의 기와 인간형질의 기가 통하지 못하는 답답한 심신의 기운, 곧 기화로 통하지 못하는 온갖 맺힘을 풀어낸다. 이러한 신통론과 기학으로부터 음악(音樂)은 인식적·윤리적·미적 요소로 매개하는 악(樂)이 음향적 재료를 이루는 음(音)을 기화(氣化)를 통해 질서를 부여하는 2중 구조로서 음의 매개성과 기화성(氣化性)으로 질서를 부여하고 신체를 통해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음악기학’을 탄생시킨다.

“음악기학이란 음의 기화(氣化)로서 신체와 대기(大氣)의 체험을 통하여 이간의 인식지평을 확대하고 그 전일체계를 실행으로 옮기는 음악이론(學)이자 실제적 실천(行)이다. 음악기학은 음악의 氣를 배움(學)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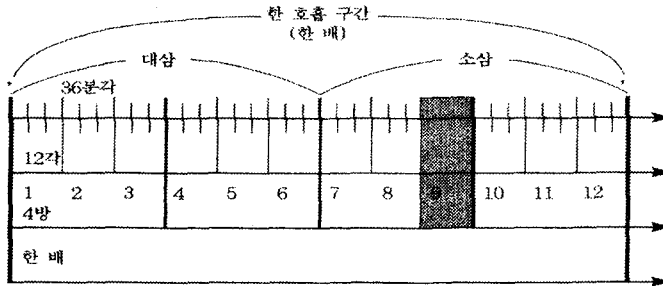
또 다시 실천(行)으로 실현하는 심신일원음악(心身一元音樂)이자 우주일원음악(宇宙一元音樂)이다.”(노동은, 1994, 49쪽) “음악기학(音樂氣學)이란 단적으로 음(音)과 악(樂)을 기화로서 신체화하고 그 신체화를 통하여 앎과 깨달음(知·覺)을 수행하는 악학(樂學)이다.”(노동은, 1994, 57쪽)

최한기의 음악기학론은 음과 악을 깨닫고 신체화하는 철학적 이론을 제시하지만, 노동은(1995)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氣)의 움직임, 곧 기화를 장단론(長短論)으로 체계화한다.

“최한기의 음악기학론(音樂氣學論)에 의하면 기(氣)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확인할 수 있는 데, 사물과 사물(또는 물체와 물체), 또는 기와 사물(또는 물체)을 부딪쳐서 소리로 그 기를 확인한다고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기와 기, 기와 사물(또는 물체)이 부딪치는 경우가 있고, 기 혼자 날릴 때도 아주 작지만 소리를 낸다고 한다. 소리는 벌써 기와 물(物, 사물이나 물체)의 부딪는 결과이기 때문에 기의 발생을 뜻한다. 이러한 기의 움직임, 곧 기화(氣化)를 어떻게 음악적이고도 사람 ‘몸’ 중심으로 처리할 수 없을까를 역사적으로 고민하고 합의하여 오늘에 이어진 것이 ‘장단’이다. 기와 물을 진지하게 선택하여(부딪쳐) 몸의 호흡 구간에 길고(長) 짧게(短) 수화(數化)시킨 것이 바로 ‘장단’이다.”(노동은, 1995, 98쪽)

음악기학론에서 기(氣)는 “기운기, 공기기, 숨기, 기절기, 마음기, 기후기, 절후기, 말음기”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인간과 우주 간 모든 현상계의 생성·변화를 가져오는 근원적인 물질이자 그것의 생리와 심리작용을 일으키는 기능의 근원으로 파악될 수 있다(노동은, 1994, 51~52쪽). 간단히 말해서 기는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것을 ‘살아 있음’으로 변화시키는 물질이다. 두레 풍물은 기화작용이 일어나는 음악 중 하나로서 기화가 지배하는 세계를 열어준다(노동은, 1995, 97쪽). 노동은(1995)은 최한기의 음악기학론에서 발전시킨 장단을 <그림 1>이 보여주는 것처럼 호흡 구간의 단위(‘한 배’)를 8분의 12박자에서 8분음표 세 개씩 묶은 4방(方), 8분음표 하나씩 계산한 12각(角), 또 1각을 세 개씩 분할하여 36분각(分角)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림 1> 장단 공간 도표



출처: 『한국근대음악사 1』(100쪽), 노동은, 1995, 서울: 한길사.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한 배의 호흡구간을 어느 정도의 길이로 잡으며 장단 타법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냐는 두 가지 과제를 푸는 것이다. 그 하나는 호흡조절이고, 다른 하나는 음양(陰陽)의 관계성이다(노동은, 1994, 60~65쪽). 호흡조절은 단순한 산소호흡이 아니라, 천지운화(天地雲火)의 기를 호흡하여 인체 형질의 기를 생생하게 움직이려는 의도에서 수행되는 호흡조절이며, 호흡수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만 1분 동안 13~22회 정도라고 한다. 음양의 관계성은 사물의 운동적 속성을 하나의 완결된 속성으로 보지 않고, 음양이라는 양극성(兩極性)의 관계에서 인식함을 의미한다. 천지간의 자연현상들(예: 땅과 하늘, 달과 해, 습함과 건조함, 물과 불, 밤과 낮, 어두움과 밝음 등)간의 관계성은 '1차적 상관관계'이고, 1차적 상관관계에서 추측(推測)한 속성(예: 내려옴과 올라감, 가라앉음과 떠오름, 쇠진과 충만, 흐림과 맑음 등)은 '2차적 상관관계'다. 이러한 관계들은 서로 대립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한 쪽이 대립하는 쪽을 동시에 가지고 기화한다. 따라서 음양의 관계성은 상대적이고, 사물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기화하지만 서로 대립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화함을 의미한다. <그림 1>에서 8분의 12박자 중 9박 째에 ■로 표시한 것

은 기화의 흐름을 이 공간에서 쳐서 모아지게 함으로써 다음 한 배의 호흡을 예비해 주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6박까지의 ‘대삼’과 뒤의 6박까지의 ‘소삼’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음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풍물에서 한 배, 4방, 12각, 36분각은 어느 악기이건 연주할 수 있는 장단의 영역이지만, 징은 한 배 1점을 쳐서 호흡을 조정하고, 뿡과리는 12분과 36분각의 공간을 넘나들면서 풍물의 장단을 세분한다. 다시 말해서 뿡과리는 징의 장단 질서에 따라 36분 공간 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징은 놀이판의 주체인 기화를 ‘한 배’로, 곧 소리가 시작하여 끝나는 구간을 사람의 한 호흡에 맞춘 호흡단위로, 구분하여 전체 호흡을 조정하는 악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은 판(또는 판굿)에서 모든 풍물패의 발놀림에 따른 호흡 조정의 질서를 규율한다.

이처럼 음악기학론을 통해 본 징소리는 우리 기층민중들의 놀이판에서 심신일원음악의 기화와 음양의 조화를 이끌어냄으로써 발놀림에 따라 호흡을 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더 나아가 징소리는 천지운화의 기와 인간형질의 기가 통하지 못하는 인간의 온갖 한(맺힘)을 풀어내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 3.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유의미한 상징으로서 징소리

징소리는 비언어적 기호(Zeichen; sign)로서 상징적으로 중개된 상호작용인 인간 및 (의인화된) 천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호는 의미가 귀속되어 있는 물질적인 현상이라고 파악될 수 있으며, 어떤 것을 의미하고 기호 자체와는 다른 어떤 것을 지시한다(Burkart, 1983, p. 29). 매체는 그 속에서 코드, 곧 두 사람 이상의 약속에 의해 다른 현상을 대리/대표하는 현상인 상징을 조작/규율하는 상징체계가 작동하는 구조이다(Flusser, 1996/2001, p. 289).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적으로 일어나는 의미중개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Burkart, 1983, p. 24).



감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고 물질적인 형식으로 구체화된 것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이건 의미 운반체로서 모두 기호로 사용될 수 있다. 기호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신호-기능’(Signal-Funktion)과 ‘상징-기능’(Symbol-Funktion)을 수행한다(Burkart, 1983, pp. 31~39). 기호의 기능이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 신호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신호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 기호, 곧 행동을 촉구하는 기호다. 따라서 신호는 물질적인 현상으로서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반응은 인간들 간의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을 수 있거나, 본능적으로 소질이 있거나 학습과정을 통해 조건 지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기호가 어떤 것(대상, 상황, 사건)을 대표/대리할 때, 곧 ‘대표-기능’을 수행할 때 상징으로 나타난다. 상징 또는 대표기호는 지시하는 대상을 대표한다. 이는 상징이 각 대상, 사물과 사건의 상황을 대신해 나타나고, 의식 속에서 견해, 상상,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상징으로서 기호가 나타나는 것은 오직 약속(관습)을 기반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 곧, 각각의 대표/대리는 약속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약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호가 신호로 기능하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기능하느냐는 그 종류와 특성보다는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기호는 신호로만 사용되지 않고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곧, 인간은 기호와 기호를 통해 중개되는 의미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기호에 특정한 사고, 견해, 상상 등을 의미내용의 형식 속에서 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특히 인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상징의 대표-기능으로부터 발전된 상황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상징을 이용해 객체(대상, 사고, 견해, 상상 등)를 대표할 수 있다. 곧, ‘상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상징이라는 ‘우회로’ 위에서 어느 때라도 그리고 실제로 현존하지 않는 객체를 소유할 수 있다. 곧, 상징형성을 통해 인간은 자연적이고 추상적인 상상을 의식 속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또한 상징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특정한 인간에게는 상황과 인생역정에 따른 추가적인 의미내용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한 상징의 의미는 개별적인 인간들의 공간-시간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다양한 인간들이 한 대상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동일한 대상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미드(Mead, 1973)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서 한 대상의 의미는 인간들 간에 일어나는 사회적 산물이며 다양한 정의 및 해석 과정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상징으로서 기능하는 기호는 단순히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대표하지 않고 이 대상에 대한 특정한 관계와의 결합 속에서 대표한다. 환언하면, 하나의 기호는 다양한 인간들에게 무조건 동일한 것일 필요가 없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실재를 상징화한다. 무수한(사회적) 상호작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개별적인 인간은 많은 숫자의 정의와 해석들을 되돌아본다. 이러한 경험들의 총체로서 모든 인간은 비축된 상징들, 곧 의식 속으로 불러낼 수 있는 ‘의미-합체’를 소유하고 있다. 인간들이 커뮤니케이션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적으로 행위할 때, 그들은 그들 행위의 일반적인 의도(이해)와 일치하는 의미를 서로 공유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들은 상징으로서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상호간에 존재하는 또는 비축된 의미들을 의식 속에서 현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상징적으로 중개되어 서로 관계를 맺는다. 무엇보다도 각각 시도된 상징적으로 중개된 상호작용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들의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적 행위의 목적에 도달할 때, 곧 각각 중개하는 의미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목표가 달성될 때 성공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두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들이 의식 속에서 동일한 의미를 현재화시킬 때만 가능하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들에게 동일한 객체(대상, 상황, 상상, 견해, 아이디어 등)를 상징화하는 기호의 비축(備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상징을 미드는 “유의미한 상징”(signifikantes Symbol)이라고 부른다. 유의미한 상징은 기호의 배후에 있는 아이디어(특정한 상상의 내용)를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에게 이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기호다(Mead, 1973, p. 85).

위에서 살펴본 기호학적 논의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징소리라는 기호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할 때, 징소리는 크게 신호-기능과 상징-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징소리는 서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궁중음악(아현)과 대취타(군악)에서 음악의 끝을 알리거나 후퇴를 알리는 신호로 기능했음이 확인된다. 곧, 징소리는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의 행동을 촉구하려는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이에 반해 두레 풍물을 주도했던 징소리는 음악기학론적 의미에서 심신일원음악의 기화와 음양의 조화를 이끌어냄으로써 발놀림에 따라 호흡을 조정하는 장단을 통해 신명을 상징화하는 상징-기능을 수행한다. 동시에 유의미한 상징으로서 징소리는 두레 풍물이라는 기층민중들 간의 소리 커뮤니케이션에서 천지운화의 기와 인간형질의 기막힘인 한(맺힘)을 풀어내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환언하면, 징소리는 기층민중들 상호간에 존재하는 ‘의미-집합체’로서 비축된 상징인 한을 그들의 의식 속에서 현재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더 나아가 징소리는 농악과 무악(굿 음악)에서 인간들과 뿐만 아니라 의인화된 천신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인간세상의 의미를 담은 상징을 하늘을 향해 올려 퍼지게 하는 청각적 매체로 기능한다.

#### 4. 문순태의 『징소리』에 나타난 징소리의 메시지

문순태는 단편 3편과 중편 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작 소설 『징소리』에서 한국 농촌의 근대화 과정에서 대규모 댐건설로 생겨난 수몰지역 실향민들의 아픔을 담아냈다. 그는 단편소설 『징소리』(1978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를 시작으로 1979년 『저녁 징소리』와 중편 『말하는 징소리』 및 『무서운 징소리』를 썼으며, 1980년 단편 『마지막 징소리』와 중편 『달빛 아래 징소리』를 집필해 그 해 『징소리』라는 제목으로 묶어서 출간했다. 이 작품은 전남 장성의 수몰지역 실향민들에게 맺힌 ‘한’을 징 소리로 풀어내고 있다. 문순태는 ‘창작노트’에서 그의 소설 주제인 ‘한’을 주자(朱子)의 오성(五性), 곧 기쁨, 분노, 욕심, 두려움 그리고 슬픔의 감정이라고 밝힌다(문순태,

1993, 307쪽). 음악기학적으로 보면, 징 소리는 이 작품 속에서 기(氣)가 통하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온갖 맺힘, 끈 한을 풀어내는 기화(氣化)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풀이로서 기화가 징소리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6편의 중·단편 소설의 내용을 따라 추적된다.

### 1) 『징소리』

“방울재 허칠복(許七福)이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미처서 돌아와 징을 두들기며, 땀을 막은 뒤통에서 밀려드는 뉘시꾼들을 쫓아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징을 두들기는 칠복이의 모습은 나무탈을 쓴 도깨비 같다고들 한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고향을 잃은 서러움, 아내를 빼앗긴 원한 때문이라고 한다. (...) 그가 징을 치고 꺽충꺽충 거릴 때마다 줄래줄래 아비를 따라 다니는 여섯 살 난 그의 딸이 징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듯 움죽거렸다. (...) 호숫가에서 띄엄띄엄 한 가하게 뉘시꾼을 드리운, 얼추 헤아려도 여남은 명이 넘을 것 같은 뉘시꾼들은 난데없는 징소리에 벌떡벌떡 일어서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얼굴로 각시바위 쪽으로 칠복이를 꼬나보았다. 징 징 징..... 징 징 징..... 마치 하늘 어느 한구석이 무너져내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울부짖는 소리와도 같은 징소리는 호수 안통 방울재 골짜기를 살살이 췌흔들었다.”(9쪽~10쪽)

이 소설의 첫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위의 문장들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고향과 아내를 잃은 허칠복의 한풀이는 어린 딸과 함께 징소리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과 징소리의 청자(聽者) 뉘시꾼과의 적대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실현된다. 여기서 징소리는 하늘 한 구석이 붕괴되는 소리 또는 한 무리의 인간들이 토해내는 울부짖음처럼 청자에게 강하고 위협적인 자극을 상징함으로써 한풀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 봉구는 잠결에 아슴푸레하게 들려오는 징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 땅겹질을 두드리는 빗방울소리 사이사이로, 징소리가 쉬지 않고 큰 황소울음처럼 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왔기 때

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바람소리와도 같은 그 징소리는 바로 뒤란의 아카시아숲계에서 가깝게 들린 것 같다가도 다시 댐 쪽으로 아슴푸레 멀어져가곤 했다. ‘바람소리인지, 징소리인지.’ (….) 징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그리고 때로는 상여소리처럼 슬프게 들렸는데,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방울재 사람들, 그게 어쩌면 그들한테 쫓겨간 칠복이의 우는 소리일지 모른다는 생각들을 다같이 했다. 그 생각과 함께 징소리가 더욱 무서워졌으며 아침을 맞기조차 두려웠다.”(32~33쪽)

소설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는 이 단락에서 징소리를 통해 한편으로는 고향에서 쫓겨나가는 칠복이의 분노와 슬픔이,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공포와 연민이 서로 교차하는 대칭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형성된다. 독자에게 긴 여운을 남기고 있는 징소리는 송신자 칠복이의 분노와 슬픔이 상징화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 소리의 청자 방울재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연민이 상징화된 메시지로 기능한다.

## 2) 『저녁 징소리』

“그러나 순덕이는 분명히 잠결에 징 징 울어대는 징소리를 들었다. 방울재 윤 초시네 마당밧기를 할 때처럼 온통 옥신거렸다. 징 징……. 안산 너덜경 허물어지는 것 같은 소리로 보아 순덕이 남편 칠복이가 징채를 잡은 것이 분명했다. 칠복이는 언제나 흰 두루마기를 입고 활처럼 경중거리며 춤추듯 징을 두들겨왔다. (….) (37쪽) 칠복이는 늘, ‘징소리는 우람하면서도 은은하게 퍼져야 제맛이 아는 뽕이유. 에밀레종이 아무리 유명한 종이라도 치는 사람에 따라 소리가 다르니까, 방울재 징도 내가 아니면 암도 이 소리를 못 낼 거유.’하면서 징을 머리 위로 높이 쳐들고 징 징 징 징채를 휘두르면서 마치 백양사(白羊寺) 범종처럼 세상을 일깨우듯 은은하고 우람하게 그 소리가 땅위로 하늘로 멀리멀리 퍼져나갔다.”(43쪽) (….) 다시 징소리가 들렸다. 선잠을 깨어 정신이 또랑또랑한데도 고막이 떨려왔다. 그것은 흥겹거나 경쾌하지도 않고, 자식을 잃은 늙은 어미의 흐느낌처럼 한스럽게 들렸다. 칠복이의 징소리는 언제나 그렇게 가슴을 쥐어짜듯 계면조(界面調) 가락으로 구슬프게 들렸다.(47쪽) (….) ‘앞으로는 말여, 순덕이를 만나고 싶

으면 맡여, 징소리로 부를 꺼인게 그리 알아. 징소리를 듣고 여그꺼정 나온 거 보 니께, 내 말을 잘도 알아듣는구먼그려!”(48쪽)”

징소리는 이 작품 속에서 집안의 복을 비는 안택굿(마당밧기)에서 신명(神明)을 만들어내고, 범종(梵鐘·쇠북)의 맥놀이 현상에서처럼 하늘을 향해 은 은하게 멀리 퍼져나가는 효과를 이용한 천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으며, 헤어져 사는 아내 순덕을 구슬픈 한의 소리로 불러내는 신호로 작동 하고 있다. 그래서 징소리의 메시지는 신명나는 곳을 동반해 집안의 복을 빌고, 천신을 일깨우며, 애타게 연인을 부르는 호소의 신호를 담고 있다.

### 3) 『말하는 징소리』

“그 소리는 하늘에서 울러오는 것만큼이나 신비스러워 지상에 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의 마음을 싱그럽고 후련하게 씻어 주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모든 시민들은 일손을 멈추고, 여름날 아침 햇살과 함께 피는 남보라색 나팔꽃처럼 컷바퀴를 신선하게 세웠다. 시민들은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곤 했다. 이제 시민들은 날마다 징오만 되면 어김없이 울려퍼지는 그 소리를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었다. (...) 그것은 잊혀진 고향에서 불어오는 한줄기의 몽클한 바람이었다. 울부짖음과 함께 이름만 생각나는 고향사람들의 얼굴이 찢겨진 선전 포스터처럼 희미한 모습으로 머릿속에서 펠럭였다. 비로소 잊혀진 고향이 떠올랐다. (57쪽) (...) ‘대낮에 옥상에서 징을 치다니 원, 자네 모자라도 웬만큼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 거 같어.’ ‘지는 마누라를 불렀습니다.’ (...) ‘마누라를 부르다니?’ ‘지 마누라는 지가 치는 징소리를 알아듣기 따시.’ (61쪽) (...) ‘징채잡이라면 방울재 안통에서 지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지는 징을 칠 때 무작정 두들겨패는 것이 아니고, 말로다가 칩니다요.’ (...) ‘글타니께요. 아까 옥상에서 칠 때는 마누라 돌아오소, 잘못을 용서할 것인께 돌아오소 험시로 쳤지요.’ (...) ‘옛날 고향에서는 징징 울어라, 풍년 들게 울어라, 징징 울어라, 태평하게 울어라, 징징 울어라, 액년 쫓게 울어라 험시로 징을 쳤읍쇼’. 그는 움죽움죽 어깨까지 들썩이고 나더니 다시, ‘풍년을 빌거나 귀신을 쫓을라면 머니머니 혀도 징소리가 켈이랴요. 북, 장고 두드림서 사흘 굿헌 거보담 징치고 하루 굿헌 것이 낫다는 말 있

드끼, 징소리를 내야만 토신이 좋아하네요.’ (63쪽) (…) 머리끝에서 발부리에까지 한줄기의 소리가 그의 핏줄을 타고 온몸에 퍼지면서, 고향을 잃은 분함 마음, 아내를 잃은 슬픔이 징소리와 함께 하늘과 땅으로 울부짖음이 되어 흩어졌다. (71쪽) (…) 그들은 손바닥만한 회색 하늘에서 고향 사람들의 희미한 얼굴을 떠올리려고 해 보았지만 은땀지를 구겨 던진 것 같은 한 가닥 구름에 가려 아무것도 살아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가슴이 답답했고, 그 답답한 가슴을 징소리가 녹여주는 듯싶었다. 징소리는 철판이 되어 버리다시피 한 그들의 가슴을 거세게 후려치며 잃어버렸던 고향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72쪽)

이 작품에서 징소리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광주 도심의 11층 건물 옥상에서 매일 정오에 울려 퍼지는 징소리는 고향을 등지고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실향민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향의 옛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유의미한 상징으로서 힘든 도시생활에서 맺힌 한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기화(기의 움직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둘째, 징소리는 징잡이 칠복(건물의 수위)의 구두 언어(말)를 동반하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듯이 집 떠난 아내를 애타게 부르고, 무악(곳의 음악)이 수행했던 것처럼 마을의 풍년과 평안을 외치며, 액운과 귀신을 쫓는 신호로 작용한다. 셋째, 징소리는 징잡이 칠복이 품고 있는 실향의 분노, 아내를 잃은 슬픔을 하늘과 땅을 향한 울부짖음이 상징화된 기화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 4) 『무서운 징소리』

“두 여자는 징소리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징소리만 울리지 않았더라도 그들 모녀는 죽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것은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한맺힌 울음소리였다. 한평생을 거의 살아버린 시골 여인들의 매듭진 손끝에서 빚어진, 높고 맑은 가을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햇살처럼, 부드럽고 윤기나는 명주 실꾸리가 감겼다가 풀리고, 풀렸다가 감기듯 하는 징소리가 사람을 죽이다니, 참 알 수 없는 일이었다. (117쪽) (…) 강촌택은 다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남편의 무덤을 찾곤 하였다. (…) ‘여보, 그 때 모양 내게 다시 힘을 주시오. 무서운 회오리바람으로 정을 뿔 때같이, 내가 당신 옆에 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란 말

이요. 당신이 힘을 주면, 당신을 찾는 것도 오늘밤이 마지막인 줄 맞시오.’ 맹 계장의 어머니는 애원하듯 말했으나, 무서운 회오리바람은 결코 살아나지 않았다. 회오리바람 대신에 마을 쪽에서 징 징 징 …… 징이 울었다. 죽은 남편이 그녀를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 같았다. 힘이 썩 빠졌다. 남편이 부르는 소리처럼 간절하게 우는 징소리가 그녀의 몸에서 서서히 혼을 빼가는 것 같았다. ‘무정헌 사람, 무정헌 사람. 살아갈 힘을 주란게, 자기헌티로 오라고…….’ 맹 계장 어머니는 힘없이 일어서서 비칠비칠 대밭을 내려왔다. 징소리는 그치지 않고 어둠을 쫓기라도 하듯 울어댔다. 그 소리는 마치 삶의 마지막 슬픔을 쥐어짜는 상여소리처럼 들렸다. 맹 계장 어머니는 어호너호 슬프게 어우러진 상여소리 같은 징소리를 들으며 집에 돌아와, (…) 딸 길녀한테 새 옷을 입힌 다음, 헛간에서 새끼 타래를 가져와 모녀가 하나가 되게 여러 겹으로 칭칭 동여맸다. ‘길녀야, 무서워하지 말거라잉. 쪼그만 참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 맹 계장 어머니는 딸한테 그렇게 말하고 준비해 놓은 성냥통을 집어들었다. 징소리가 맹 계장 어머니를 재촉하였다. 맹 계장 어머니는 오래 오래 징소리를 간직하고 싶었다. 징…… 징…… 징…… 칠복은 집을 나가면서 징을 머리 위로 쳐들고 징채를 후려쳤다. 무섭게 가라앉은 밤공기가 무겁게 출렁이면서 마을을 뒤흔들었다. (…) 그는 마치 대보름날 저녁에 방울재 사람들이 아랫마을 박골 사람들과 햇불싸움을 하러 갈 때처럼 자진모리 가락으로 징을 울렸다.”(190~191쪽)

이 중편 소설에서 징소리는 두 가지 상이한 상징으로서 징잡이와 청자간에 오해의 커뮤니케이션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제 목숨처럼 아끼던 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 때문에 신명이 난 칠복이가 울리는 징소리는 고향의 햇불놀이를 상기시키는 환희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시(광주)에 사는 아들(맹 계장)의 땀(칠복에게 미숙한 노처녀 여동생을 맡기고 광주로 모시려는 술수)을 알아차린 늙은 과부에게 징소리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절망의 소리이자 저승의 남편이 이승에서 살만한 가치를 상실한 아내와 딸을 자기 곁으로 오라는 슬픈 상여소리와 같은 죽음의 소리를 상징화한다. 전자가 징소리를 통해 신명의 기회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후자는 고향을 잃을 생의 마지막 슬픔, 곧 죽음의 기회가 상징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5) 『마지막 징소리』

“순덕이가 버스에서 내리자 징 징 징 징소리가 들려왔다. 백암산(白岩山) 일곱 골짜기를 갈퀴질하듯 살살이 훑고 내려온, 한겨울 바람처럼 가슴을 섬뜩하게 찌르는 징소리, 순덕이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 징소리는 하늘에서 햇살을 타고 내려오고 있는 듯싶기도 하였다. 흉년에 아기를 굶겨 죽인 어머니의 배고픈 울음,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슬픈 울부짖음이나 전장에 아간 아들의 전사통지서를 받고 눈물은 메말라 버린 채 숨만 가쁜 늙은 어머니의 목선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긴긴 겨울밤 오동나무 잎이 휘휘 휘 바람에 떠는 소리에 잠 못 이루고 대처로 돈벌이 간 남편을 기다리는 가난한 아낙의 긴 한숨, 때로는 순덕이처럼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자식까지 버리고 집을 나간 아내를 원망하는 남편의 뼈를 깎아내는 듯한 탄식과도 같은 징소리. 그 소리는 백암산 일곱 골짜기에서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꽃혀 내리는 햇살에 섞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였다. 버스에서 내린 순덕은 징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찾느라고 두렷두렷 고개를 돌려가며 갈 바를 정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징소리는 바람과 함께, 질기고 가는 명주실꾸리처럼 풀렸다가 감기고 감겼다가 다시 풀리곤 하였다. ‘저 징소리가 어디서 울려오나요?’ (...) ‘징소리라뇨?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데요.’ 경운기를 몰고 가던 젊은이는 팽팽한 눈으로 순덕이를 질러보며 반문했다. (197~198쪽) (...) 어둠 속에서 남편이 불쑥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 봉구네 매운탕 집을 향해 가다 말고 어느덧 자취도 없이 어둠에 묻혀 버린 할미산 밑 호수 쪽으로 몸을 돌렸다. 호수 쪽에서 징소리가 들려왔다. 징소리가 들려오자 그녀의 머릿속이 아침 이슬 머금은 나팔꽃처럼 맑아졌다. 순덕은 바쁜 걸음으로 호수를 향해 갔다. 징소리는 중모리에서 휘몰이로, 휘몰이에서 다시 자진모리로 거칠고 빠르게 울려왔다. (...) 징소리는 호수 속에서 울려왔다. 순덕이는 떡갈나무 가지들을 한 움큼 휘어잡고 오도카니 서서 징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는 검은 호수를 들여다보았다. 경중거리며 정채를 휘두르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눈물이 크렁한 어머니와 흰 두루마기 자락을 나풀거리며 학춤을 추는 아버지, 호도껍질처럼 쭈글쭈글한 얼굴에 노기를 담은 할머니의 모습도 보였다. 방울재 사람들이 모두 보였다. 남편 칠복이가 두들겨 패는 징소리에 맞춰 온통 방울재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순덕이는 갑자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졌다. 그러나 순덕이가 헤어졌던 방울재 사람들을 다시 만나

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징소리가 똑 멎어 버렸다.”(210~220쪽)

이 단편소설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물속에서 순덕(칠복의 아내)에게 들려오는 환청(幻聽)의 징소리는 신명의 상징으로서 참혹한 처지에 놓인 인간의 한을 표출하고, 굶판에서 풍물패의 발놀림에 맞춰 호흡을 조정하는 기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징소리는 굶어죽은 어린 자식을 그리워하는 힘 없는 한탄, 실항민의 울부짖음, 자식의 전사통지서를 받은 노모의 통곡, 겨울밤 객지로 돈벌이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가난한 아내의 한숨, 떠난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간 아내를 원망하는 남편의 탄식이 상징화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편 징소리는 마을의 굶판을 연상시킴으로써 천지운화(天地雲火)의 기를 호흡하여 인체 형질의 기를 생생하게 움직이게 하는 장단과 음양의 관계성(여기서는 남편 칠복과 아내 순덕)에 따라 대립을 통한 조화를 상징하는 기화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전자가 한의 기화라면, 후자는 신명의 기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호수 속에서 들려오는 환각(幻覺)의 징소리는 순덕에게 남편과 가족에 대한 옛 추억에 대한 표상(表象)으로서 환영(幻影)의 신명을 상징화함으로써 시청각적으로 얼버무려진 죽음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

## 6) 『달빛 아래 징소리』

“아무렇지 않다가도 고향에만 돌아오면 정신이 확 돌아 버리거든요. (….) ‘그 늙은 징 때문이라고들 하네요. 징에 방울재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하던가……?’ ‘방울재 귀신?’ ‘나도 칠복이자식이 밤에 징을 치면 그 소리가 꼭 귀신 우는 소리 같아서 소름이 짹 끼친다니까요. 박씨는 귀신 우는 소리 같은 징소리가 무섭지 않던가요?’ ‘무섭긴……. 자네 그 오뉴월 장마철에 돌담 무너지는 소리 같은 노랫소리보다 훨씬 좋던걸.’ ‘저눔에 징을 물속에 처넣어 버리든지 해야지 안 되겠어요.’” (224쪽) ‘칠복이!’ 손판도(댐의 야간경비원: 필자 주)가 고개를 쳐들며 불렀다. ‘왜 그런가?’ ‘갑자기 자네 징소리를 듣고 싶구만.’ (….) ‘판도 자네는 내 징소리를 싫어하지 않는가.’ ‘싫어했었지. 징소리만 들리면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거든.’ ‘그런데 왜?’ ‘달라졌어. 이제 무섭지가 않으니까.’ (… ‘그렇잖아 두 널 아침 동이 트면 똑이 무너지도록 징을 칠 생각이었네. 징을 더 쳐야 우리 여편네가 올 모양이구만. 내 징소리가 백 리 밖에 있는 여편네의 가슴을 망치질 하듯 때려 줘야만 돌아올 모양인가 원!’ ‘징소리가 백 리 밖까지?’ ‘그까짓 백 리가 뭐여! 나를 잊지만 았았다면 천당에 가 있어도 내 징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로구만.’ ‘허긴, 이제야 말이네만 자네가 남도시에 있을 때도 날이 굶은 날이면 가끔 징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같데만.’ ‘그랬어? 자네가 내 징소리를 들었던 말이 재? 그렇다면 자네도 고향을 아주 잊은 것은 아니구만그려. 자네 맘속에도 고향이 벼룩알 만큼은 살아 있구만그려.’ (274쪽) (…) 손판도는 죽은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다 말고 소스라쳐 고개를 둑 쪽으로 돌려버렸다. 칠복의 아내였다. ‘죽었는가?’ 밤새 아내를 기다리던 칠복이가 큰 소리로 물었다. (…) 손판도는 말없이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서 뻗뻗하게 물 위에 누워 있는 칠복이의 아내를 두 팔로 떠받쳐 조심스럽게 보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두 발을 텀뻑거리며 보트를 밀고 백암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흙탕물 물살을 거슬러 상류 쪽으로 올라갔다. ‘판도. 이 사람이, 뚝 쪽으로 나오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그가 죽은 칠복이의 아내를 보트에 싣고 상류로 올라가자, 둑 위에서 손판도의 행동을 지켜보고 서 있던 칠복이가 화가 난 목소리로 버럭 고향을 질렀다. ‘칠복이…… 내가 올 때까지 꿈쩍 말고 댐에서 기다리고 있으소잉. 그리고 엿저녁에 나한테 징을 쳐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좀 쳐줄란가?’ 보트를 밀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손판도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가 둑에서 멀리 떨어져갔을 때, 갑자기 징소리가 방울재 하늘을 췌흔들었다. 칠복이의 징소리는 멀고 먼 불귀의 북망산으로 가는 상여소리처럼 슬프게 울었다.” (289~290쪽)

연작 소설 『징소리』의 마지막 중편인 이 작품에서 징소리는 네 가지의 복합적인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징소리는 수몰지역 실향민들이 호수로 변한 고향으로 돌아와 물속으로 몸을 던져 자살하는 사태의 원인으로 서 귀신을 상징화하는 무서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둘째, 징소리는 도시에 서 살고 있는 실향민들에게 고향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으로서 강한 향수의 메시지를 담아낸다. 셋째, 징소리는 아내를 애타게 부르는 “하늘의 소리”로 상징화됨으로써 이승의 백 리를 넘어 저승의 천당에까지 전해지는

격렬한 소환(召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징소리는 아내를 천상으로 보내는 슬픈 상여소리를 상징화함으로써 사별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처럼 징소리는 공포, 향수, 소환, 사별이라는 한의 기화를 상징화하는 격한 감성의 메시지로 작동하고 있다.

## 5. 조정래의 『아리랑』에 나타난 징 소리의 메시지

조정래(1995)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제2부 ‘민족혼’(4권) 첫머리에서 지진이 호랑이 울음소리에 비유되듯이 우리의 민족혼은 우렁찬 소리로 묘사된다. 이 소설의 작가는 사그라진 우리 민족혼의 재생이 신명으로 고통을 극복하는 농악의 생명력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김창식, 2000, 310쪽). 무엇보다도 정월 대보름날에 울려 퍼지는 징소리는 넓고 깊은 긴 울림으로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기화를 상징화한다.

“박건식은 달이 징으로 보였다. 귀에서는 징소리가 징징징징 울려대고 있었다. 징소리를 따라 온몸이 스멀스멀해지면서 피가 뜨거워지고 있었다. 징소리는 쇳소리 중에서도 가장 폭이 넓고 깊이가 깊은 소리였다. 태산이고 파도이면서 애간장 타는 속울음이고 천리 밖의 님을 부르는 소리였다. 한 번 쳐서 수백겹의 파장을 이루는 그 넓고 깊은 소리의 긴 울림은 아련하고 아슴하고 아득하기가 사람의 혼을 빼가는 것 같았다. 그 소리에 들러 밥맛조차 잃고 징채를 잡아보려고 허덕거렸던 열서너 살 그때의 세월이 그리웠다. ‘이놈아, 니 그리 쇳소리에 미치다가 소리째 따라나스겠다.’ 아버지의 노여움이었다. ‘와따, 자가 누구 아덜인디 그리 천하니 될라고 허겔소. 소리 알아듣는 재주 타고났당게 지 히고 잡은 대로 냅두세요. 동네 풍물얼 올리자도 재주꾼이 있어알 것 아니겔소.’ 어머니의 역성이었다. 아버지는 다짐을 받고서야 징채를 잡게 해주었다. 자신도 소리째를 따라나서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소리째의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배고프고 서글픈 행각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4권, 15쪽)

유년 시절 작중 인물이 체험했던 농악(풍물)의 감흥과 추억을 생생한 장

면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소설의 짧은 단락에서 징소리는 혼(魂)의 소리로 상징화된다. 무엇보다도 정월 대보름날 장엄하게 떠오르는 보름달이 징으로 보이고 환청의 징소리를 듣는 징잡이 박건식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민족 혼은 뜨거운 피로 되살아나고 있다. 쇧소리 중에서 가장 깊고 넓은 소리로서 징소리는 태산처럼 웅장하고 파도처럼 일렁이는 맥놀이(beat)를 형성하면서 애간장 타는 속울음 소리, 천리 밖의 낯을 부르는 소환의 소리, 아련한 추억 속으로 인간의 혼을 앗아가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이처럼 징소리는 칸트(Kant)적 의미<sup>3)</sup>에서 장엄(숭고)함(Erhaben)으로 다가와 인간의 영혼을 빼앗아갈 정도로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징소리는 식어버린 우리의 피를 뜨겁게 해 우리의 혼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민족혼의 기화를 상징화함으로써 숭고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6. 유정자의 『징소리에 실려올 꽃의 숨소리』에 나타난 징 소리의 메시지

유정자(1991)의 시집 『징소리에 실려올 꽃의 숨소리』에 나오는 세 편의 시—<징소리(1)>, <징소리(2)>, <징소리(3)> (76~81쪽)—에서 징소리는 ‘빛줄기’(햇살), ‘화살의 춤사위’, ‘어머니의 이야기들’, ‘꽃의 숨소리’, ‘목소리’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윤병로(1991)는 연작시 <징소리> 3편을 “인간 심령의 간절한 울림으로 혹은 대자연의 합창으로 서정적 화음을 드러

3) 칸트(1993, pp.9~13)는 인간의 감정을 크게 변화시키는 데 두 가지 느낌이 있다고 했다. 그 하나는 숭고(장엄)함(Erhaben)이고, 다른 하나는 아름다움(Schön)이다. 칸트에 의하면 밤은 숭고하고, 낮은 아름답다. 조용한 여름밤 갈색 하늘의 그림자를 뚫고 나온 떨리는 별빛과 둥근 얼굴 형상을 하고 외롭게 떠 있는 달은 서서히 친근감, 세상에 대한 경멸, 영원함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반해 햇빛이 찬란한 낮은 분주한 열정과 즐거움의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그래서 숭고함은 감동시키고, 아름다움은 흥분시킨다.

낸다”(127쪽)라고 해석하면서, 징소리의 이미지를 향수의 음향으로 간주한다. “시인의 어린시절을 아득히 되씹어 읊미하는 향수 짙은 음향으로 깊이 새기게 한다”(129쪽). 또한 그는 징소리의 메시지를 소리의 주의환기 기능으로 보고 있다. “<징소리>가 뿔어대는 의미는 세련된 한 폭의 동양화처럼 은은하고도 정밀하게 펼쳐지면서 각별한 심상을 환기시켜준다 하겠다”(129쪽).

“징소리(1)

땀돌아 일어서는/떨리는 빗줄기/늑골을 지나 퍼져 흐르는 화살의 춤사위

가슴 한가운데 뚫린/동전만한 생채기에서/아무것도 퍼올리지 못하는/답답함으로/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적막함으로/쏟아내는/잠재울 수 없는 눈물

강신의 힘을 빌어/솟아 오르는/피의 모반 속에서/오히려 자유롭게

오히려 뜨겁게/껴안을 수 있는 너와 나/살아 있는 날의/공허를 노래한다.”(76~77쪽)

“징소리(2)

내 유년의 강가엔/하얗게 서리 내린/갈뚝이 피고/어머니의 징은 울고

어머니의 옥색치마 폭에/흐르는 별빛을 주워 담은/모양새 고운 대광주리 속에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승천을 꿈꾸며/나래짓을 배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젖비린내 나는/순하디 순한 가슴으로/징소리를 찾아

노을은 그리도 곱게 타오르고/푸른 햇바닥을 넘실거리던 강물이

세상의 거짓을 모두 휘몰아/아픈 상처까지 훑으며/물보라를 일으켜/폭포로 떨어  
어져 가던/  
이유를 알겠다.”(78~79쪽)

“징소리(3)

천지를 뒤엎어/하얗게 더 하얗게/설산에서 울려오는 소리가/춤을 춘다.

희다못해 투명해진/나뭇가지들은 얼음옷을 입고/수액을 빨아 올리는/숨가쁜/  
팝추의 몸부림이  
흰히 보이는 수정집 속에서도/징은 우는데

손에 닿을 듯 잡힐 듯/멀어져 가는/어딘가 피어 있을 에델바이스 꽃 한 송이/  
징소리에 실려올/꽃의 숨소리를

나의 빈잔에/뿌듯이 차오를/목소리를 찾아/눈꽃같이/하얀 치마폭을 휘날리며  
산을 오른다.”(80~81쪽)

<징소리 1>에서 징소리는 한편으로 “떨리는 빗줄기”처럼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 “화살의 춤사위”처럼 예리한 자극을 상징화함으로써 가슴 속 깊은 곳에 맺혀 있던 한을 눈물로 풀어내는 기화의 메시지를 담아낸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에 등장하는 징소리는 무악(巫樂)에서 새로운 무당의 탄생을 알리는 강신(降神)굿에서처럼 뜨거운 피의 모반(謀反)으로 용솟음쳐 삶의 공허에 저항하는 노래로 상징화됨으로써 곳곳한 생의 저항이라는 기화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이처럼 눈물의 한풀이와 생의 저항을 상징화하고 있는 징소리는 “인간 심령의 간절한 울림”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징소리 2>에 등장하는 징소리는 시인의 유년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추억의 이야기들이자 어머니의 숨결로 상징화된다. 그 이야기들은 승천하면서 ‘하늘의 소리’인 징소리로 묘사된다. 또한 시인은 ‘젓바린내 나는’ 순한 마음으로 징소리를 찾아 나서고, 징소리는 불타는 저녁노을에 반사되어 흐

르는 강물처럼 거짓을 추방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물보라를 일으키며 폭포로 떨어져 강약과 장단의 소리를 상징화한다. 이처럼 징소리는 한편으로 어머니의 포근한 숨결(기)이 담겨 이야기가 짓먹이 아동의 귀를 스치며 하늘로 울려 퍼지며 천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저녁 징소리는 한 순간 잔잔히 흐르는 강물처럼 인간의 거짓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후 그 순간이 지나면 거친 물소리를 내는 폭포처럼 사라지는 강약과 장단의 기화를 이루어내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징소리 3>에서 묘사되고 있는 징소리는 하얀 눈이 덮인 설산에서 춤처럼 강약과 장단에 맞추어 울려 퍼짐으로써 꽃의 숨소리라는 메시지를 전해 온다. 추운 겨울 투명한 공간 속에 간혀 꿈처럼 몸부림치고 있지만, 징소리에 봄의 메시지, 곧 꽃의 숨소리를 들려줄 주인공을 찾아 시인은 산을 오른다. 그래서 꽃의 숨소리로 작용하고 있는 징소리는 시인이 느끼는 삶의 공허를 해소해 주는 상징으로서 기화의 메시지를 담아낸다.

## 7. 결론

이 연구는 우리민족의 신명과 한의 메시지를 인간과 천신에 전달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징소리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조선의 철학자 최한기에 의해 창시되어 우리 민족음악의 부활을 꾀한 노동은이 체계화한 ‘음악기학론’과 미드(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따라 분석하려는 시도다.

최한기의 음악기학론은 사물과 사물 또는 기와 사물을 부딪쳐서 소리로 그 기를 발생시켜 기의 움직임, 곧 기화를 확인하는 민족음악론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은은 이 기화를 음악과 결부시켜 사람의 ‘몸’ 중심으로 처리해 ‘장단’으로 발전시켰다. 징소리의 장단은 호흡의 기본 단위인 ‘한 배’를 조종함으로써 굿판과 풍물패에서 발놀림에 따른 호흡 조정의 질서를 규율한다.

한편 미드(Mead, 1973)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한 대상의 의미는 인간들 간에 일어나는 사회적 산물이며, 경험된 실체는 비축된 상징들(‘의미-



집합체”)을 통해 상징화된다. 상징적으로 증개된 상호작용, 곧 커뮤니케이션은 파트너들 간에 동일한 객체(대상, 상황, 상상, 견해, 아이디어 등)를 상징화하는 기호의 비축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기호의 배후에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에게 이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기호인 “유의미한 상징”을 통해 수행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징소리는 음악기학론의 요체인 기층민중들의 신명과 한의 기화를 상징화하는 유의미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순태의 연작소설 『징소리』에서 묘사되고 있는 징소리는 이 작품 속에서 기(氣)가 통하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온갖 맺힘, 곧 주자가 얘기한 성(五性)인 기쁨, 분노, 욕심, 두려움 그리고 슬픔의 기화가 상징화된 메시지를 전한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에 나타나는 웅장한 징소리는 거친 파도와 같은 맥놀이로 형성함으로써 일제 하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슬픈 한을 풀어주고, 식어버린 민족혼을 다시 일깨우는 기화가 상징화된 메시지를 담아낸다.

유정자의 시집 『징소리에 실려올 꽃의 숨소리』에 수록된 <징소리 1, 2, 3>에서 징소리는 ‘심령의 간절한 울림’으로서 시인의 가슴 속 깊이 맺혀 있던 한을 눈물로 풀어내고, 유년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추억의 이야기이자 어머니의 숨결을 회상시키며, 겨울 산에 다시 찾아올 꽃의 숨소리로 다가오는 기화가 상징화된 메시지로 작용한다.

음악기학론과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적용해 우리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징소리의 다양한 메시지 해석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선 우리의 징소리가 실내악이나 궁중음악에서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연주되는 서양의 악기들과는 달리 열린 공간인 ‘굿판’ 또는 ‘마당’ 혹은 ‘들판’에서 하늘을 향해 울려 퍼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의 징소리가 인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뿐 아니라 의인화된 천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매체로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층민중들이 사용해온 징소리의 상징은 천지운화의 기와 인간형질의 기가 통하지 못하는 인간 감성의 온갖 맺힘

인 한을 풀어내는 기화가 상징화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징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기화 메시지의 수용자가 인간화된 천신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민족의 관대(寬大)함과 담대(膽大)함이 잘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징소리는 인간에 대한 한풀이(보복)의 소리라기보다는, 하늘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넓고 높은 숭고미(崇高美)를 함축하는 하늘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징소리는 유의미한 상징으로서 우리 기층민중들의 소리 커뮤니케이션 현장인 놀이판에서 발놀림에 따라 호흡을 조정함으로써 신명의 기화를 이끌어내 왔다. 이 때 상징으로서 징소리는 징이라는 악기가 내는 단순한 소리 기호가 아니라, 우리 기층민중들이 처한 농경사회적 상황이 만들어내는 힘든 노동과정과 그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의미내용을 소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성함으로써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곧, 징소리의 상징은 노동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기층민중들의 소리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속에서 신명이라는 대상을 대표해 왔다.

이처럼 징소리를 통해 하늘을 향한 열린 공간에서 일어나는 신명과 한풀이의 소리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의 고유한 의미-집합체이자 유의미한 상징을 기반으로 형성된 민족문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우리 문화의 원형으로서 인간 공동체 유지를 위한 우리 민족의 소리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전통 악기(예: 사물에 해당되는 북, 장고, 팽과리 등)를 매체로 수행되는 소리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준일 (1994). 전통음악가치체계로의 원론적 접근. 민족음악연구회 (편), 『민족음악의 이해 3』(28~44쪽). 서울: 민족음악연구회.  
권오성 (2000). 『한민족음악론』. 서울: 학문사.

- 김성재 (2004). 한국의 소리 커뮤니케이션: 쇠북(鐘) 소리의 메시지. 『한국언론학보』, 48-1호, 258~283.
- 김성재 (2005). 탈문자 시대의 매체현상학: 기술적 형상의 탄생에 대하여. 『한국방송학보』, 19-1호, 76~108.
- 김창식 (2000). 『대중문학을 넘어서』. 서울: 청동거울.
- 노동은 (1994). 음악기학(음악기학) I. 민족음악연구회 (편), 『민족음악의 이해 3』(45~103쪽). 서울: 민족음악연구회.
- 노동은 (1995). 『한국근대음악사 1』. 서울: 한길사.
- 문순태 (1993). 『징소리』. 서울: 천지서관.
- 손태룡 (2000). 『한국음악 개론』(증보판). 서울: 민속원.
- 유정자 (1991). 『징소리에 실려올 꽃의 숨소리』. 서울: 귀인사.
- 윤병로 (1991). 서정성에 철저한 삶의 찬가 - 유정자의 시집 「징소리에 실려올 꽃의 숨소리」에 부쳐. 유정자 (1991). 『징소리에 실려올 꽃의 숨소리』(126~137쪽). 서울: 귀인사.
- 정병호 (1986). 『농악』. 서울: 열화당.
- 조정래 (1995). 『아리랑』제4권. 서울: 해냄.
- 차배근 (1993). 『커뮤니케이션학개론(상)』. 서울: 세영사.
- 황루시 (1992). 『한국인의 굿과 무당』. 서울: 문음사.
- Burkart, R. (1983). *Kommunikationswissenschaft*. Wien/Köln: Böhlau Verlag.
- Flusser, V. (1996). *Kommunikologie*. 김성재 역 (2001). 『코무니콜로지: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Kant, I. (1993). *Beobachtungen über das Gefühl des Schönen und Erhabenen*. Frankfurt a. M.: Hain.
- Luhmann, N. (1990). *Die Wissen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a. M.: Suhrkamp.
- Mead, G. H. (1973). *Geist, Identität und Gesellschaft*. Frankfurt a. M.: Suhrkamp.

(최초 투고 2005.6.1, 최종원고 제출일 2005.10.20)

## Korean Sound Communication

The Message of Korean Gong Sound

Seong-Jae Kim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dealing with the communication of Korean gong sound. It is based on 'music-spirit theory' of Han-Gi Choi and Mead's 'symbolic interactionism', and does this by interpreting the message of gong sound that is mentioned in Korean literature. The gong sound brings out the message of symbolizing evaporation of Korean people's joy and regrettable matters in the playing yard by regulating of breathing according to the steps. By the novel "Gong Sound" of Sun-Tae Moon Korean gong sound has a message of people's joy, anger, avarice, anxiety and sorrow. In Jeong-Rae Jo's novel "Arirang" the Korean Gong Sound includes a message of evaporation of people's regret and raises the national spirit during the Japanese imperialism. By Jeong-Ja Yoo's collection of poems, "The sound of flower breathing carried by gong sound", the Korean gong sound carries a message of a roar of spirit and breathing of the spring flower. In conclusion, the Korean gong sound is a sublime sound of sky which carries the message of symbolizing evaporation of people's joy and regrettable matters through the sound communication in the open space, and awakes us to a method of breathing with sky.

Key words: Gong sound, sound of sky, music-spirit theory, symbolic interactionism